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집권 후반기 참여정부,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종합 부동산 대책과 전세 가격 상승

경영 노트

- 알파 메일(Alpha Male)의 효과적인 관리

정치 현안

- 참여정부 전반기 성적표는?

저널 브리프

- 단순화 전략

洗心錄

- 사목지신(徙木之信)의 故事

□ 집권 후반기 참여정부,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선진 제도 구축’의 두 가지 중점 정책 방향을 토대로 10대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음
 - 이 중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 부동산 투기 근절, 인적자원 구축,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과 여성취업 장려, 국민연금 개혁 등의 6대 과제를 제시하고
 - 또한 선거제 개편, 과거사 청산, 국가 경쟁력 낙후 분야 개혁, 정부 혁신 지속 추진 등의 4대 과제를 통해 ‘선진 제도 구축’을 도모할 계획임
- 이번 10대 과제 중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의 체제 강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데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세부 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의 제시와 실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부동산 대책과 전세가격 상승

- 개학과 결혼 시즌을 앞둔 계절적 수요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르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에 전세 가격은 강남권은 물론 강북 지역과 신도시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 최근 한 달간 서울과 신도시의 전세 가격은 20~30평형 중소형은 500~1,500만 원, 40평형대 이상은 2,000~5,000만 원 상승함
 - 또한 지난주(8월 15일 ~ 20일)에 강북구 0.3%, 용산구 0.2%, 평촌 0.4%의 상승률을 기록
-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으나, 주택 보급률 상승과 지난 2~3년간의 건설경기 호황에 따르는 신규 입주 물량의 확대 전망으로 앞으로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물량 확대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유세 부담의 전세 가격 전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알파 메일(Alpha Male)의 효과적인 관리*

- 알파 메일이란 늑대 집단의 우두머리 수컷을 일컫는 용어로, 매우 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공적인 임원을 지칭하는 용어임
 - 이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책임도 기꺼이 떠맡아 조직의 최고 지위에 도달하곤 함
 - 따라서 알파 메일 성향 임원의 특성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는 임원관리를 통한 전사 성과 제고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 알파 메일은 긍정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 양쪽을 모두 지님
 - 일반적으로 알파 메일은 높은 자신감과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에 있어 행동 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보임
 - 반면, 때때로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비난하기도 하며, 성과 달성 프로세스의 변화에 저항하기도 하고,
 - 일방적인 업무 추진으로 복종적인 문화를 만들거나, 조직원들에 대한 동기유발에 취약점을 갖고 있음

- 알파 메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궁극적으로 성과 달성 프로세스의 개선이 가능해짐
 - 알파 메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 다면 평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변화에 헌신적으로 참여시키고 개방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직원 혹은 팀 성과에 대한 자신의 역할 및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설정해야 하며,
 - 칭찬에 인색한 경향을 보이므로,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맞추어 조직 내 동기유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Harvard Business Review* (2004년 5월)에 실린 “Coaching the Alpha Male”을 요약·정리한 것임

□ 참여정부 전반기 성적표는?

- 8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잘한다 vs 못한다’의 비율을 살펴보면, 25.0% vs. 68.2%(동아일보, 8.18일), 22.7 vs. 64.5%(문화일보, 8.16일), 29.0% vs. 66.1%(한국일보 8.9일), 28.2% vs. 61.2%(조선일보, 7.18일)임
-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9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국경제신문, 8.22일)
 -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는 ‘경기 활성화’(43.7%), ‘일자리 만들기’(15.8%), ‘물가’(12.9%), ‘빈부격차 해소’(11.8%), ‘부동산’(8.5%) ‘국가균형발전’(5.9%), ‘노사정책’(1.1%) 등이 언급됨
- ‘가장 잘한 분야’로는 ‘남북관계’(20.4%), ‘권위주의 청산’(17.7%), ‘국민 참여·여론 수렴’(9.4%) 순임(아래 모두는 동아일보 8.18일 조사 참조)
 - ‘가장 잘못된 분야’로는 ‘부동산 정책’(28.8%), ‘물가 불안정’(26.4%), ‘빈부 격차 확대’(24.7%), ‘실업 문제’(23.6%) 등이 언급됨
- 노무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탈권위적’(19.7%), ‘개혁적’(17.2%), ‘소신’(14.1%), ‘미래지향적’(12.2%), ‘투명’(9.5%), ‘국민여론 수렴’(7.2%)의 순
 -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42.1%), ‘일관성 부족’(19.0%), ‘독단적’(12.4%), ‘국민여론 무시’(8.4%), ‘인기위주 정책 추구’(8.0%), ‘급진적’(4.8%) 등이 언급됨
- 대권 후보 호감도에서는 고건(35.0%), 박근혜(15.1%), 이명박(14.2%), 정동영(10.2%), 이해찬(3.5%)의 순
 - 정치 주체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이 많음. 불신하는 비율이 열린우리당(73.0%), 청와대 참모진(72.1%), ‘한나라당’(64.5%), ‘행정부’(64.1%), 노무현 대통령’(63.6%), 이해찬 국무총리(61.7%)의 순임

□ 단순화 전략*

- 복잡한 기능과 소형화에 몰두하는 일반적인 트렌드와 달리, 단순성을 강조하는 단순화 전략을 지향하는 흐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 “기술이 발전할수록 살기가 쉬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중장년층 소비자의 반발을 의식한 전략임
- 세계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보다폰이 최근 출시한 야심작 ‘보다폰 심플리’(Vodafone Simply)는 기본적인 전화 기능에 음성, 문자 메시지만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게 이 제품의 특징
 - 사이즈, 액정화면, 버튼 등이 젊은이들 기준으론 우악스러울 정도로 큼
 - 700만 화소의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에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초박형 단말기가 판을 치는 업계 흐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
- 보다폰이 이런 역발상의 제품을 내놓은 것은 종전처럼 더 작고, 더 복잡한 제품을 고집하다간 중장년이라는 거대한 소비자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
 - 보다폰의 마케팅 조사에 의하면 35~55세 중장년층의 3분의 1 이상이 문자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에 따라 2003년 최소한의 기능만을 탑재해 쓰기 쉬운 중장년용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결정, 보다폰 심플리를 개발
 - 가령, 배터리가 줄어들면 바로 액정 화면에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하십시오’라는 문자가 뜨는 식임
- 이처럼 중장년층을 겨냥한 기능 단순화 전략은 휴대전화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필립스는 아예 외부 인사로 구성된 ‘단순화 자문위원회’(Simplicity Advisory Board)를 구성, 자신들의 제품을 쓰기 쉽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음
 - 극단적인 경우지만, 프랑스텔레콤은 노인들을 위해 딱 세 개의 커다란 버튼만이 달린 전화를 출시한 바 있음. 이들 버튼에 주치의 전화번호 등을 기억시켜 줌으로써 비상시에 쓰게 함

* 이 글은 『Economist』(2005.8.3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사목지신(徙木之信)의 故事

<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 고사로서, 위정자가 백성과 맺는 신의에 관한 얘기다.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는 상양(商鞅)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상양이 표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는데, 이는 훗날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

상양은 진나라를 부강하게 할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선불리 공포하지 않았다. 상양은 먼저 세 길 높이의 나무 하나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웠다. 그리고는 이것을 북문으로 가져다 옮기는 사람에게 10금을 준다고 방을 내걸었다. 백성들은 괴이하게 여겨 아무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옮기는 사람에게 50금을 주겠다고 상금을 올렸다. 그제서야 어떤 사나이가 장난 삼아 나무를 옮겼다. 상양은 즉시 그에게 오십 냥의 상금을 내렸다. 이렇게 하여 상양은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밝히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사목지신(徙木之信), 즉 나무를 옮김의 믿음이란 뜻이 나온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는 말로서, 특히 위정자의 신의를 강조하는 데 쓰인다.

그 뒤 상양은 새로운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위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나 그 법이 매우 엄격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 이때 태자가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상양은 태자에게도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에 따라 태자의 시종장과 선생을 자자형(刺字形)이라 하여 멍글씨를 이마에 적어 넣는 형에 처한다. 다음 날부터 백성들은 법을 준수하게 되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줍지 않았고, 산에는 도적이 없었다.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하였으며, 개인의 싸움에는 참을성을 가졌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의이다. 특히 상하 사이, 조직과 개인 사이에 신뢰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동의어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며, 반대말은 식언(食言)이다.

행복은 종종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오고,
불행은 종종 작은 일에 태만함으로써 생긴다.

빌헬름 부슈(1832~1908) : 독일의 시인, 화가